

3년만에 성장세 꺾인 수입차 시장

2019년 수입차 판매량 24만4780대…전년比 6.1%↓

벤츠·BMW 등 獨 브랜드 '강세'…볼보·지프는 1만대 돌파

2019년 수입차 브랜드별 판매량 순위 (단위: 대)

순위	2019년	2018년	증감률
메르세데스-벤츠	7만8133	7만798	10.4%
BMW	4만4191	5만524	-12.5%
렉서스	1만2241	1만3340	-8.2%
아우디	1만1930	1만2450	-4.2%
토요타	1만611	1만6774	-36.7%
볼보	1만570	8524	24.0%
지프	1만251	7590	35.1%
미니	1만222	9191	11.2%
혼다	8760	7956	10.1%
포드	8737	1만1586	-24.6%
폭스바겐	8510	1만5390	-44.7%
랜드로버	7713	1만1772	-34.5%
포르쉐	4204	4285	-1.9%
푸조	3505	4478	-21.7%
쉐보레	3270	-	-
닛산	3049	5053	-39.7%
재규어	2484	3701	-32.9%
인피니티	2000	2130	-6.1%
캐딜락	1714	2101	-18.4%
마세라티	1260	1660	-24.1%
시트로엥	962	1053	-8.6%
람보르기니	173	11	1472.7%
풀스로이스	161	123	30.9%
벤틀리	129	215	-40.0%
합계	24만4780	26만705	-6.1%

자료:KAIDA

지난해 수입차 시장이 3년만에 역성장을 기록했다. 인증절차가 강화된 틈에 일부 브랜드들이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토요타

등 일본차 업체들이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은 결과다.

크고 작은 약재 속 브랜드별 수입차 성적표 또한 뒤바뀌었다. 메르세데스-벤츠가 8만대에 육박하는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볼보, 지프 등 기존 중위권 브랜드들은 역대 최고 실적으로 일본차 자리를 대체했다.

6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입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47.1% 증가한 3만72대로 집계됐다. 이로써 지난해 12월까지 연간 누적 대수는 24만4780대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26만705대)보다 6.1% 감소한 수치다.

수입차 시장은 지난 2016년 디젤게이트 때 22만5279대로 밀린 이후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해 왔다. 지난해에는 26만대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는 상반기 인증지연에 따른 물량 부족, 하반기 일본차 불매운동 여파 등이 판매량에 영향을 미쳤다. 브랜드별로 보면 총 7개 브랜드만 전년 대비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16개는 감소했다. 나머지 1개는 지난 11월 수입차 시장에 첫 진입한 한국지엠(GM) 쉐보레다.

일본차의 경우 지난해 여름부터

이어진 일본 불매 운동 영향으로 혼다를 제외한 4개사가 모두 역성장하는 등 판매량이 급감했다. 지난해 일본차 5개사의 누적 판매량은 3만6661대로 전년 동기 대비 19.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닛산이 전년 대비 39.7% 줄어든 3049대에 그치며 감소폭이 가장 커고, 토요타가 36.7% 판매량이 감소했다. 양사의 고급 브랜드 렉서스와 인피니티는 각각 8.2%, 6.1% 판매가 줄었다.

다만, 일본차 브랜드들은 지난해 연말로 접어들며 대대적인 할인 판매에 돌입, 판매 회복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판매흐름을 읽을 수 있는 월별로 비교보면 지난해 12월 5개사 판매량은 3670대로 전달 대비 55.7% 증가했다.

일본차가 부진한 사이 벤츠는 비롯한 독일차들은 강세를 보였다. 특히 벤츠는 12월까지 7만8133대 판매로 접유율 31.9%를 기록, 전체 수입차 시장을 견인했다.

벤츠는 지난 2018년 7만798대를 팔면서 수입차 최초 7만대 고지를 밟은 바 있다. 지난해는 이 기록을 경신하며 2016년부터 이어진 수입차 판매 1위 기록도 4년 연속으로 이어갔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수입차 시장은 일부 브랜드의 물량 부족과 일본차 불매·변수로 판매량이 감소했다"며 "올해는 시장 상황이 다시 재편될 가능성성이 높다"고 말했다.

뉴스1

작년 가계대출 증가율, 5% 넘었다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의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의 목표치인 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융당국은 부동산 위주의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바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주요 5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KEB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610조562억원으로 2018년 12월 말 570조3635억원 대비 7.08%(40조3927억원) 늘었다.

이는 금융당국이 15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가계부채(대출) 증가율을 '5%대'로 묶기로 한 것

출 증가세는 크게 둔화됐다.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9월 말 599조3850억원에서 10월 말 604조2991억원, 11월 말 610조4332억원, 12월 말 610조7563억원 등으로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다. '가계대출 축소·기업대출 확대'라는 금융당국의 방침이 반영된 신(新) 예대율 규제 의 올해 도입을 앞두고 신 예대율 100% 기준을 맞추기 위해 가계대출 속도조절에 나섰기 때문이다.

예대율은 예금액 대비 대출액을 의미한다. 은행 예대율 제한 기준은 100%로 예금액을 넘는 대출을 취급하지 말도록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은행이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에는 15% 가중치(115)가 부과되

작년 말 5대 시중 은행 가계대출 잔액 610.7조

전년비 7% 증가 농협·신한·하나 순

신 예대율 도입 앞두고 가계대출 증가율 둔화

을 초과한 수치다.

은행별 가계대출 증가율을 보면 농협은행 9.58%, 신한은행 9.00%, 하나은행 7.81%, 우리은행 5.55%, 국민은행 4.73% 순이다. 이들 5곳 중 3곳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해당 은행 부행장을 불러 속도조절에 나서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은행 기준으로도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5%대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은행의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체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881조 1000억원으로 2018년 12월 말 875조7500억원 대비 7.00%(53조5000억원) 증가한 수준을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율 5%대 제한은 법령상 정해진 사항이 아닌 가이드라인에 불과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제재할 방안은 없다"며 "다만 경영진 면담은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지난해 후반기 가계대

는 반면 기업대출은 15%를 낫춰(85) 적용된다. 같은 예금액을 기준으로 기업대출은 15% 더 할 수 있지만 가계대출은 15% 떨 하도록 규정이 바뀐 것이다. 부동산에 쓸린 가계대출을 육성하고 기업대출을 늘려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역에서 시가 15억원 이상 주택매입 담보대출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고강도 12·16주택시장 안정화대책 시행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신 예대율 규제로 기업대출이나 예수금을 크게 늘리지 않는 한 공격적인 가계대출 영업에 나서기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12·16 대책 등 각종 대출 규제로 올해는 주담대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량고객을 잡기 위한 대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했다.

보해 일새주 가격 동결 선언…주류기업 중 유일



국내 대기업 주류회사 등이 잇따라 소주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

기운데 광주전남 행정기업인 보해양조가 '일새주 가격 동결'을 선

언했다.

보해양조는 6일 "지역과 상생을 위해 2020년을 한해도 일새주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보해의 소주가격 동결은 2016년 8월 이후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주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소주시장 75%를 점유하고 있는 대기업 주류회사들은 인건비와 원재료값 상승을 이유로 소주값을 일방적으로 올렸다.

주요 업체들이 소주가격을 올리면서 지역민과 상생을 추구했던

지역 주류기업들도 도미노처럼 인상했다.

대전지역 주류업체가 지난 2월부터 소주가격을 인상했고 경남지역 주류업체 역시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해양조가 일새주 가격을 동결함에 따라 인건비와 원재료값 상승을 내세운 주류 기업들의 소주 인상 해명이 무색해지게 됐다.

보해는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지역민의 사랑에 보답하고 함께 발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일새주 가격 동결을 비롯해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뉴스1

살기 좋은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

